

광주일보-광주·전남 언론포럼 4·11 총선 1만명 여론조사 ▶ 관련기사 3·4·5·6·7면

7곳 오차범위 내 접전, 4곳 혼전양상

부동층 35% 판도 가를 변수...63% “반드시 투표하겠다”

광주일보와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 공동으로 실시한 4·11 총선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4곳의 선거구에서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이 양자 대결로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함에 따라 컷-오프(후

보 압축)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접전 선거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비율이 평균 35.2%로 집계됨에 따라 부동층의 표심이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 향배는 물론 총선 구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15일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언론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0~12일 사흘간 광주·전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만명(광주 4000명, 전남 6000명, 국회의원 지역구당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7곳의 선거구에서 오차범

위 내의 치열한 지지율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동구와 북구 갑, 북구 을, 서구 을, 광산 갑에서, 전남은 순천시와 담양·곡성·구례 지역구에서 선두권 예비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의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광주 서구 갑과 함평·영광·장성, 영암·장흥·강진, 고흥·보성 등은 1위와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있었으나 오차범위를 3~4% 벗어나는데

그쳐 혼전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양자 대결로 국민 경선을 치르며 따라 컷-오프 이후, 접전 지역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두 명의 후보가 한 장의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 예비 후보별로 분산됐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비율이 평균 35%대로 집계되면서 부동층의 표심이 민주통합당의 공천과 총선의 흐름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남구의 경우, 부동층의 비율이 무려 62%를 기록했으며 북구 을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반적인 바닥 표심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층의 표심도 이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 63%로 나타나,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4~5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한 마디로 혼전 양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컷-오프 결과에 따라 지역 총선 구도는 다시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봄 물고오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봄기운이 완연해진 14일 전남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경제학부와 경영학부 입학예정자들이 중앙도서관 앞 연못 봉지(鳳池)에서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대결하고 있다. '봉지 배물'이라고 불리는 이 대결은 수년 전부터 매년 초 두 학과 신입생들이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이벤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노트르담드파리

Notre Dame de Paris
English Version

2012. 3. 8(목)~3. 11(일), 4일간 6회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 since 1952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무대화한 명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1998년 파리에서 초연된 '노트르담 드 파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00만명이 관람한 뮤지컬로 시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 상징적인 무대 미학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번엔 광주를 찾는 공연팀은 6년만의 해외 오리지널 투어팀 공연이며 영어 버전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과거 모도를 13년 간 연기해 온 배우 뫼랑이 과거 모도역을 맡아 원숙한 노래와 연기를 선보입니다.

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KBC, KCTV광주방송 | 주관 | 공연마루
| 문의 | 062-220-0541, 1588-0766
| 예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천정부지 치솟는 난방비

일조량 줄어 생산량은 뚝

시설농가 한파 시름

최근 기습한파가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와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시설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1월 들어 강추위가 몰려 오고 전년과 비교해 일조량이 10% 이상 줄어들며 작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함에 따라 생산량과 상품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기준 올 1월 일조량은 172시간으로 전년 194.9시간보다 12% 가량 적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해 알이 작아진다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량까지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성군 미니방울토마토 송기수(51) 작목반장은 “일당 5만원을 쥐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지나해 1500원에서 8000상자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4000상자로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이 ‘올겨울겨울’식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하루스 농가들이 4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료비다. 지난 2010년 1월 1당 890원이었던 연료비 가격은 2011년 1월 1080원, 올해 같은 기간 1130원으로 올랐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김주홍(화순군 도곡면)씨는 “3~4년전만 해도 연간 4000만~5000만원만 해도 연료가 들어갔지만 현재는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지열난방이나 공기순환식 히터 펌프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비용이 수억원이 소요돼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야간온도를 21도로 유지해야 하는 재배특성상 파프리카는 작기(作期) 6~7개월을 포함해 연중 난방을 해야 한다.

또한 종자와 포장재 가격 등 생

이르면 8월부터 상비약 편의점 판매

국회 약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가을부터는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사(양성과정) 모집

과정	모집인원	과정	모집인원
신문활용 논술교실	각 30명	창의적 미술교실	각 20명
사진활용 학습교실		창의적 수학교실	
자기주도 학습교실		신나는 음악교실	
원어민참여 영어교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즐거운 체육교실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3과목 동시 자격증(토요일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사+자기주도적 학습 지도사+진로탐색상담사)		즐거운 한자교실	20명

- 모집대상 : 전문대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 전공자
- 접수기간 : 2012년 2월 6일(월)~2월 24일(금)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3일(토)까지
- 교육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수강료 : 29만원(자격증 비용 별도)
- 접수방법 : 알리오TV(www.aliotv.kr) 홈페이지 참조
- 활동지역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특 전 : 1. 광주일보 수료증 발급
2. 성적우수자 초·중·고 방과후 교사 취업 우선지원
3. 수료시험 이후 방과후 교사 자격증 수여

※ 자격취득 후 진로 : 창업지원, 방과후교사,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이동센터 강사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육 시·군·지회 모집

주최 : 65 광주일보사
광주일보사 교육법인
주관 : ADEC (주)아 데 크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광주지회

문의전화. 062-220-0555 H.P 018-693-6604

통합진보당, 민주당에 선거연대 제안

통합진보당이 14일 민주통합당에 4·11 총선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우위역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단은 13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야권연대협상 개시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기구 협상대표로 장원섭 사무총장을 내정했다”며 “민주당도 이에 준하는 협상대표를 임명해 실속있는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저지를 위한 원내외 투쟁을 포함한 현안공조를 시급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은 지난달 16일 야권연대기구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3월 초면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다. 우리 제안의 유효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